

경제동향

■ 요약

■ 생산 생산지수/재고지수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가 소비자물가/ 신선품

한진아(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주요 FTA 대상국별 수출입 품목

양승희(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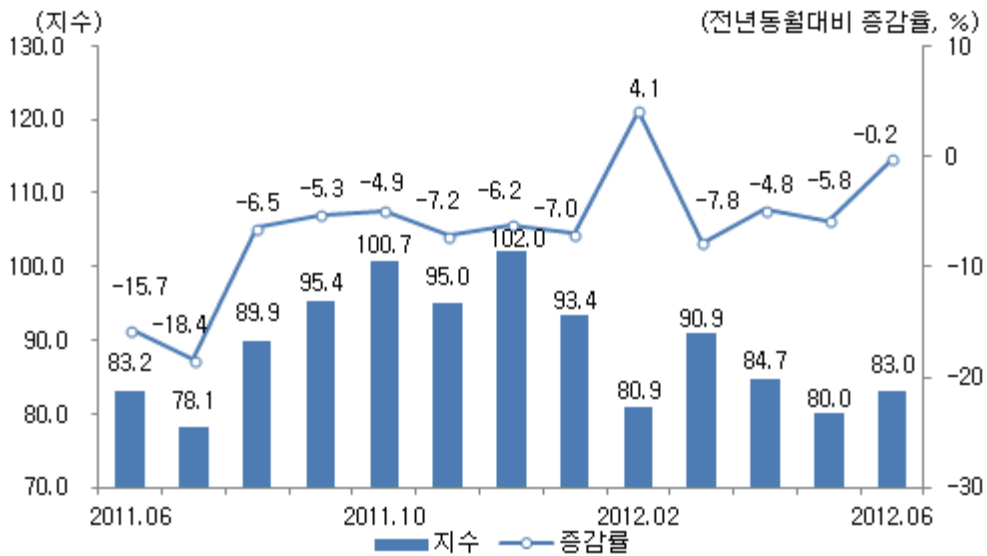
소비	<p>서울의 6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2%로 2개월간 2%대를 시험하고 있다. 6월에는 백화점을 중심으로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판매를 보인 것은 패션용품이 40.1%, 식품 30.2%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부문별로 판매액은 백화점 3.6% 증가 대형마트 0.1% 증가하였으며, 권역별 판매액은 4권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및 강동구가 1위, 그 다음으로 3권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인 것으로 나타났다.</p>
고용	<p>서울의 6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및 실업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였고,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령별 취업자 중 고령층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 취업자 연령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p>
물가	<p>서울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5%로 지난달에 이어 2%대를 나타냈다.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항목은 생선, 채소,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으로 11.6%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태풍의 여파로 각종 신선식품의 가격상승이 우려되며 물가 안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p> <p>전도시의 물가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물가가 전국에 비해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부동산	<p>서울의 6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주택전세가 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어 포함하였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과 매수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서초구, 유형별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및 전세 가격 모두 하락하였다.</p>

| 생 · 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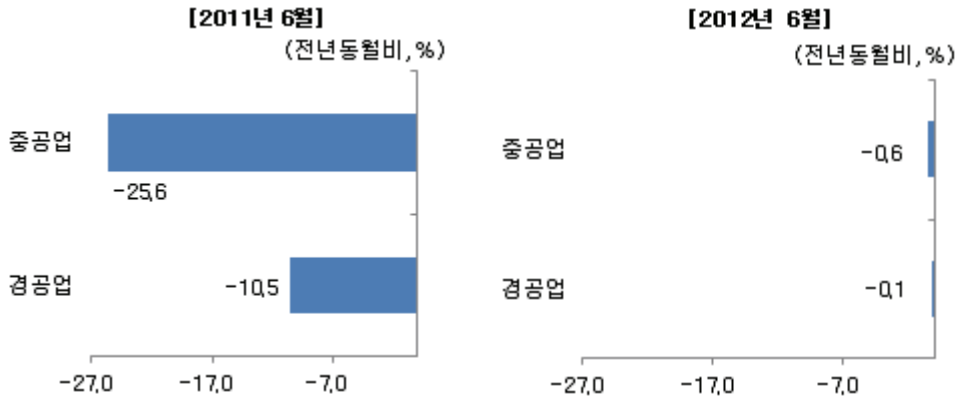
서울의 6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6월 산업생산지수 4개월째 마이너스 성장

- 서울의 6월 산업생산지수 83.0(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0.2% 감소
- 중공업 부문 전년동월대비 0.6%, 경공업부문 전년동월대비 0.1% 각각 감소
- 전년동월대비 기계장비(188.1%), 인쇄 및 기록매체(11.2%), 고무 및 플라스틱(29.4%) 각각 감소, 전기장비(-44.5%), 기타제품(-33.5%) 각각 감소
- 중공업, 경공업 부문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전국의 6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6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54.6(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 제조업 생산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기계장비(-8.2%), 영상음향통신(-5.9%) 등에서 각각 감소
- 반면, 반도체 및 부품(8.6%), 1차 금속(2.6%), 자동차 (1.5%) 등은 각각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4.2%), 도소매(-0.4%) 등에서 감소, 보건, 사회복지(5.0%), 금융보험(1.8%) 등의 증가로 1.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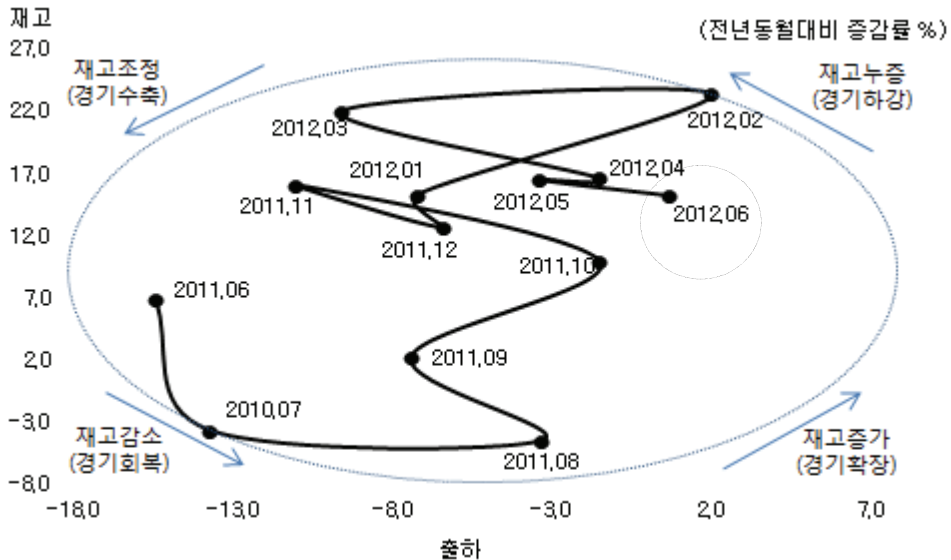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6월 제조업부문 경기회복 단계

- 서울의 6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증가, 재고 감소로 경기 회복기
 - 서울의 6월 재고지수는 180.4(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15.2% 증가
 - 서울의 6월 출하지수는 81.0(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출하 증가, 재고 감소로 경기회복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서울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백화점을 중심으로 증가

■ 서울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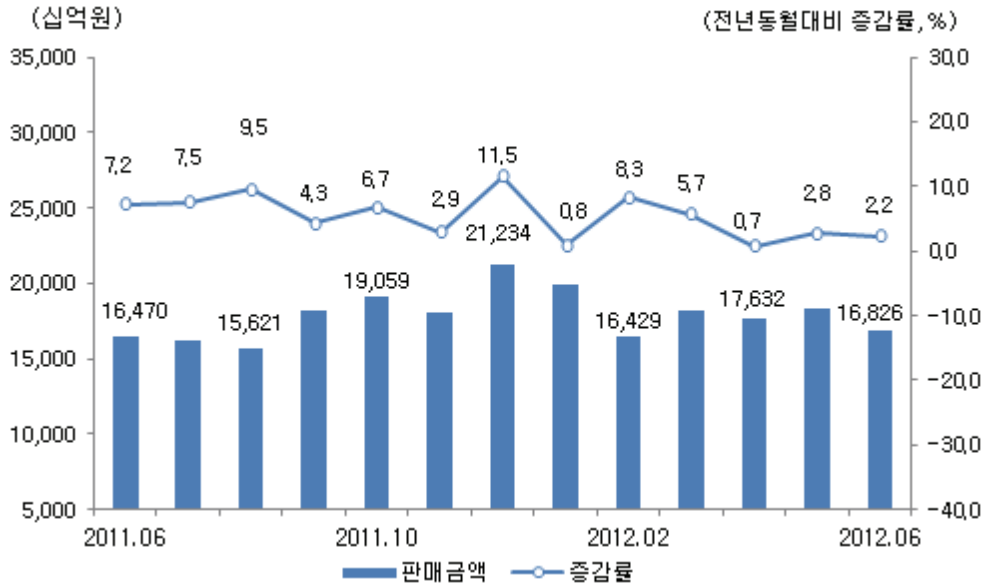
- 서울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6,826억원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은 3.6%, 대형마트는 0.1% 각각 증가
- 품목별 판매순위는 패션용품(40.1%) 6,748억원, 식품(30.2%) 5,074억원, 생활용품(18.4%) 3,098억원 순

■ 서울의 6월 백화점의 판매순위 1위는 패션용품, 대형마트는 식품

- 백화점 판매액은 1조42억원(59.7%), 대형마트 판매액은 6,784억원(40.3%)으로 집계
- 백화점 1개점 평균 매출액은 358.6억원이며, 대형마트는 91.7억원임
- 백화점 판매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56.9%), 대형마트는 식품(56.3%)
- 권역별 판매액은 4권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36.9%인 6,201억원 판매, 3권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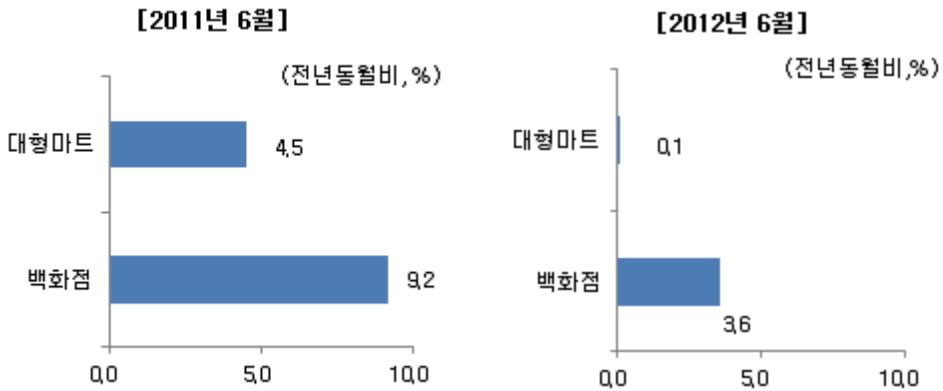
■ 전국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대형마트는 4.0% 감소
- 유형별로는 컴퓨터, 가구 등 내구재 1.6% 증가, 의복 등 준내구재 1.0% 감소,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0.4%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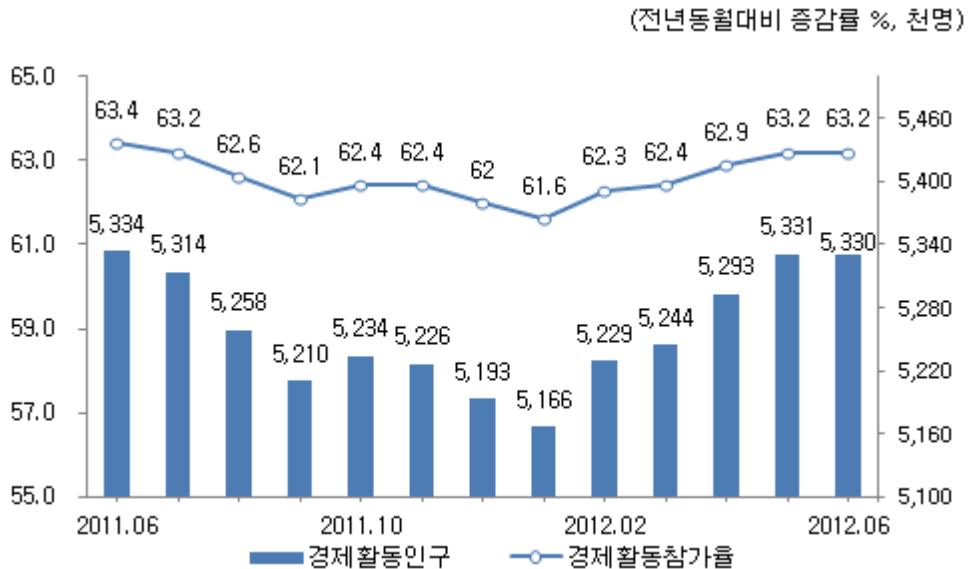
서울의 6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 서울의 6월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6월 15세 이상 인구는 8,44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명(0.3%)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33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1%)이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3.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3,11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천명(1.0%)이 증가

■ 전국의 6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보합

- 전국의 6월 15세이상인구는 4,156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만9천명(1.3%)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593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8천명(1.4%)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4.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여자는 51.3%로 전년동월과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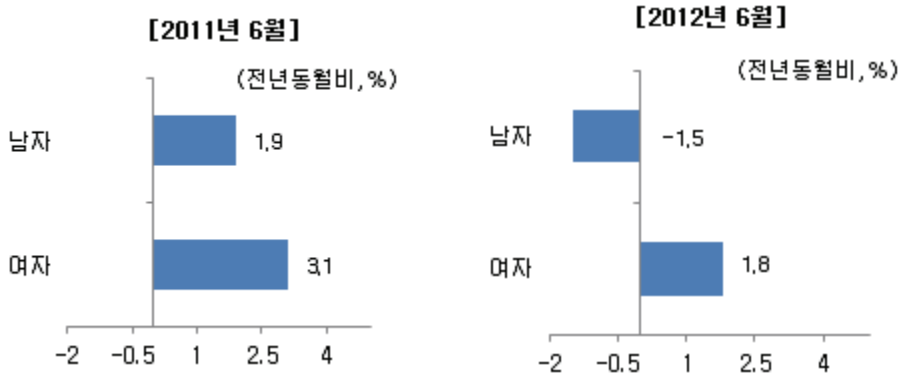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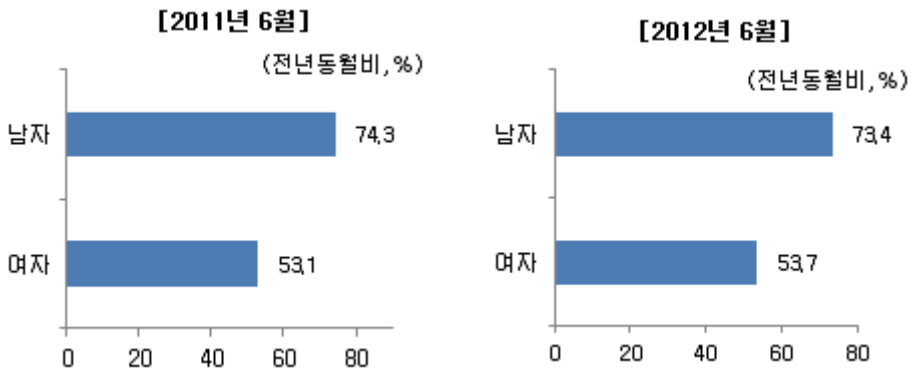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

■ 서울의 6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남자 하락, 여자 상승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85천명, 여자는 2,34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5% 하락, 여자는 1.8%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3.4%, 여자는 53.7%로 전년동월대비 남자, 여자 각각 0.9%p 하락, 0.6%p 증가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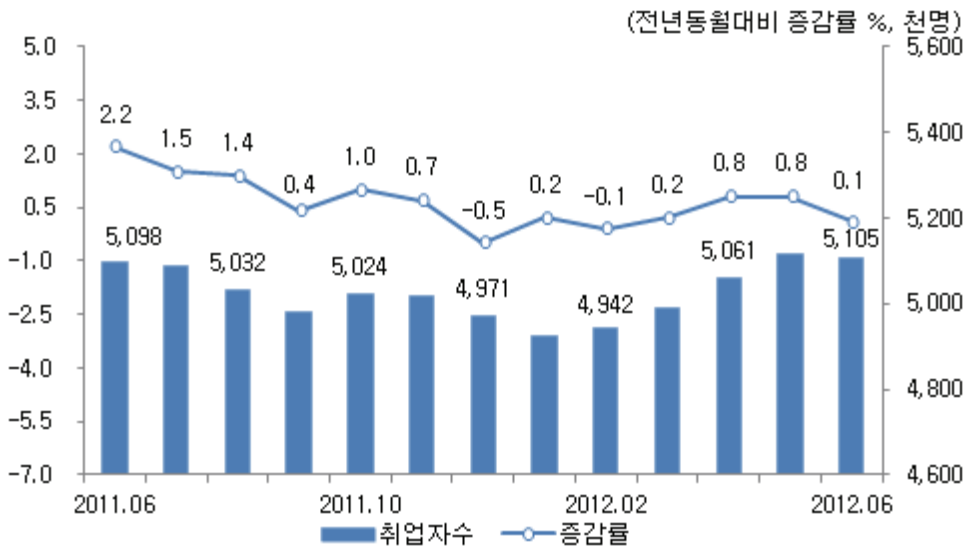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 취·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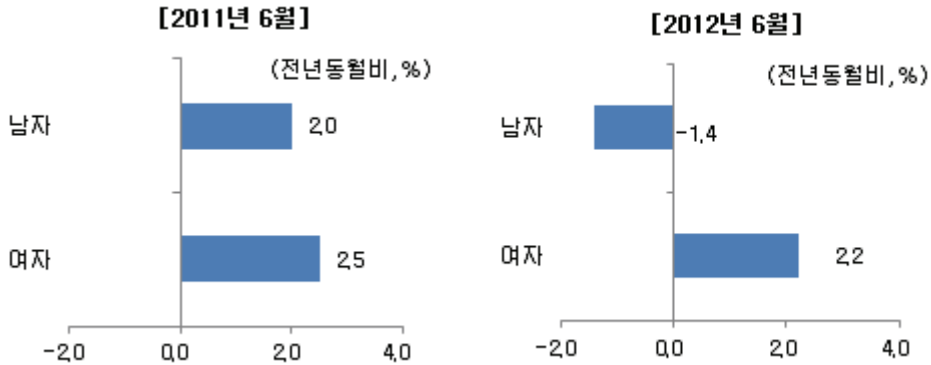
서울의 6월 전년동월대비 청년 취업자 수 5개월 연속 감소

- 서울의 6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6월 취업자는 5,1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0.1%)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42천명, 여자는 2,26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42천명(-1.4%)이 감소한 반면, 여자는 49천명(2.2%)이 증가
- 전국의 6월 남, 녀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전국의 6월 취업자는 2,511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5천명(1.5%)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 1,454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7천명(1.4%) 증가, 여자 1,057만5천명으로 15만8천명(1.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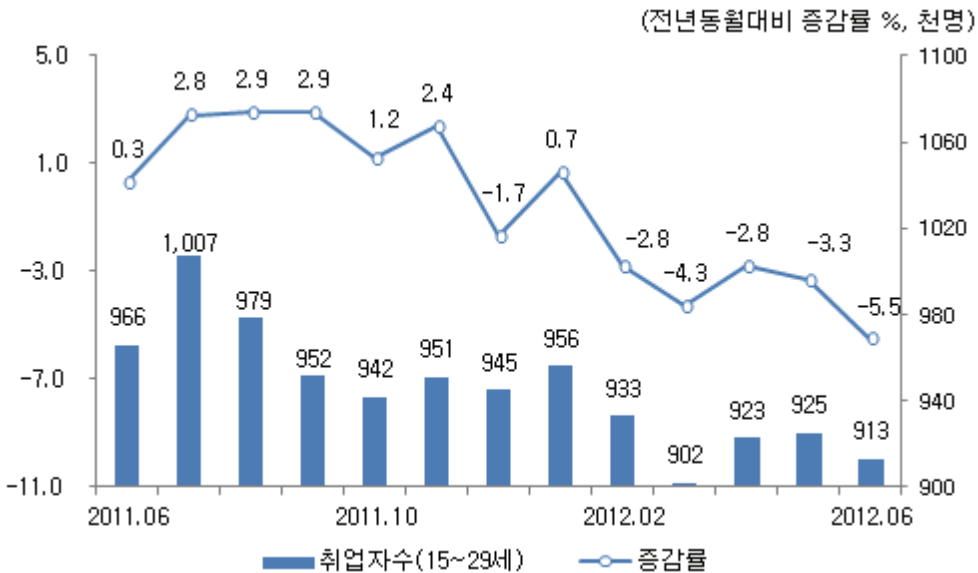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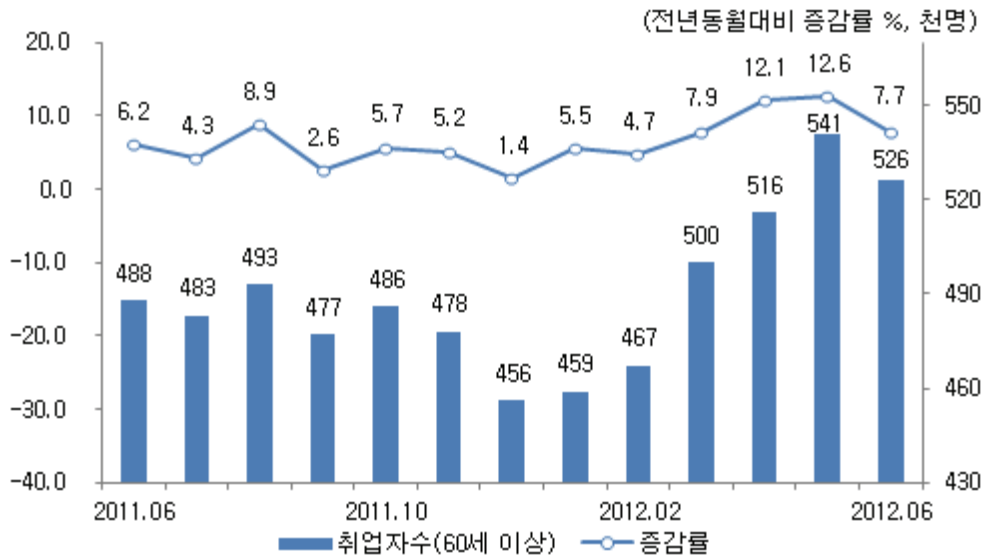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 서울의 6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 수 감소,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
 - 서울의 6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하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 서울의 6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7%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고령층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 반면 청년층 취업자 감소로 연령별 취업자간 양극화 현상 지속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증가, 건설업 감소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2천명(31.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64천명(3.2%),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천명(0.3%) 각각 증가
- 건설업 29천명(-7.4%), 제조업 23천명(-4.3%), 도소매·음식숙박업 11천명(-0.8%) 각각 감소

■ 직업별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증가, 관리자 전문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7천명(71.0%), 사무종사자 82천명(8.4%)이 각각 증가
- 관리자·전문가 53천명(-3.6%),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28천명(-2.0%), 서비스·판매종사자 1천명(-0.1%)은 각각 감소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각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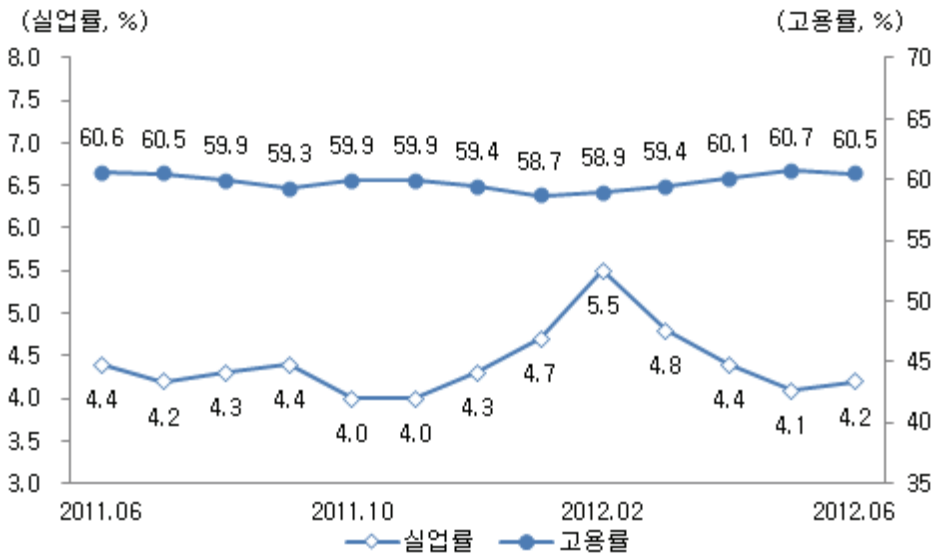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5천명(-1.5%), 무급가족종사자는 16천명(-8.9%)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05천명(4.6%)이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7천명(-3.8%), 일용근로자는 20천명(-4.9%)이 각각 감소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서울의 6월 고용률 및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각각 하락

- 서울의 6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6월 고용률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8%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한 반면, 여자는 51.8%로 0.7%p 상승
 - 서울시 고용률은 60.5%로 전국(60.4%)에 비해 0.1%p 높은 수준

- 서울의 6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6월 실업자는 22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4.2%)이 감소
 -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8%로 전년동월대비 0.1%p, 여자는 3.5%로 0.4%p 각각 하락
 - 서울시 실업률은 4.2%로 전국(3.2%)에 비하여 1.0%p 높은 수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서울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4개월 연속 2%대 시현

■ 서울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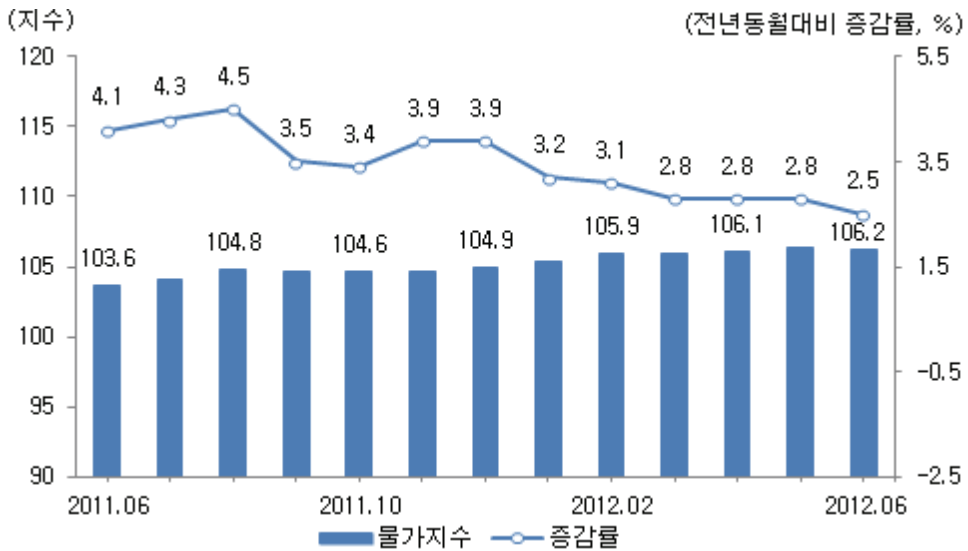
- 서울의 6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6.2(2010년=100.0)로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부문을 보면, 기타상품 및 서비스부문(-3.9%), 통신부문(-3.4%), 오락 및 문화부문(-0.7%) 각각 하락하였으며, 그 외의 부문은 모두 상승
-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3.6% 상승, 그 중 농축수산물은 5.9%, 공업제품은 2.9% 각각 상승
-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그 중 집세는 4.4%, 공공서비스 1.8%, 개인서비스 0.2% 각각 상승

■ 서울의 6월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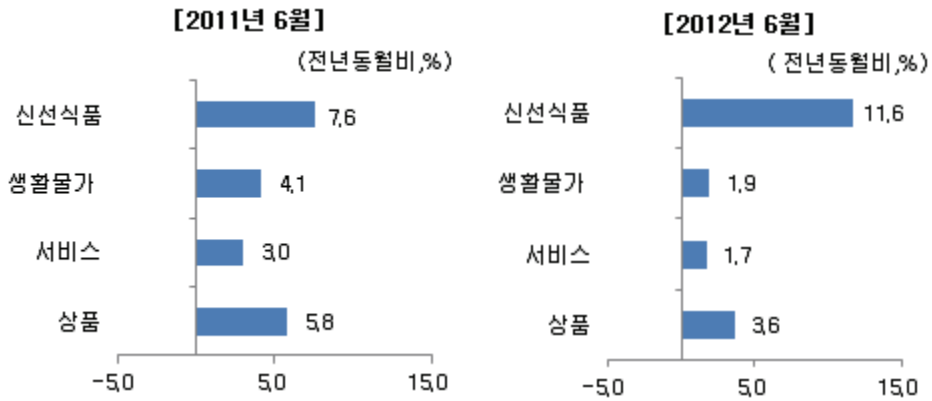
■ 전국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16개 광역시 모두 하락

- 전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1(2010년=100)로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 비로는 2.2% 상승으로 4개월 연속 2%대 시현
- 16개 광역 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인천과 울산은 변동이 없으며,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는 0.1~0.2%, 광주, 전남 등 5개 시도는 0.3~0.4% 각각 하락
- 특광역시를 제외한 30개 도시별로 전월과 비교하면, 강릉과 의정부는 각각 0.2%, 0.1% 상승하였고, 수원, 성남, 안산, 천안은 변동이 없으며, 안양, 부천 등 24개 도시는 0.1~0.4%씩 하락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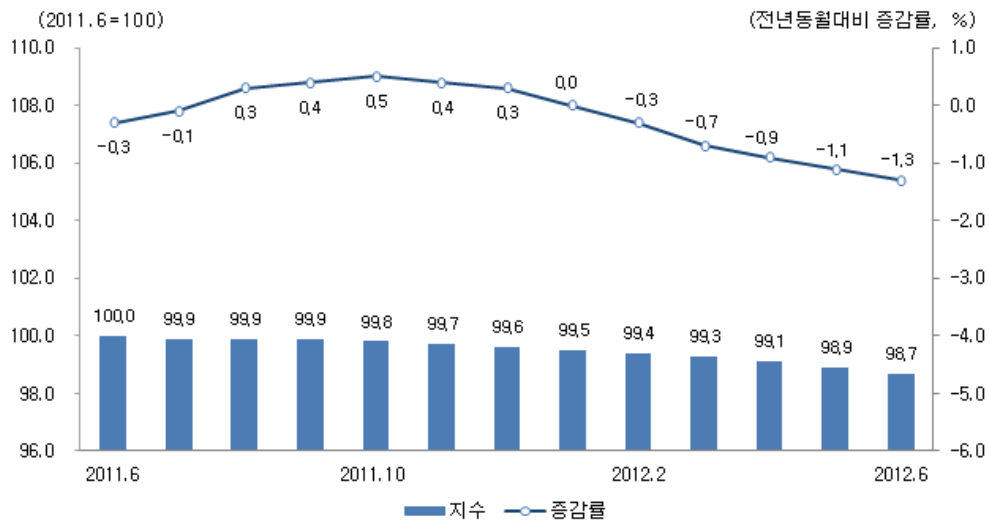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의 6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8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의 6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과 수요자들의 매수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0.2% 하락하여 8개월 연속 하락세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0.3% 상승한 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1.5%, 0.3% 하락
- 전국의 6월 주택매매가격 매수시장 관망세가 확대되며 두달 연속 보합세 지속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고 수요자들의 매수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 전월과 동일한 보합
 - 수도권은 전월과 동일하게 0.2% 하락하여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각각 0.1%, 0.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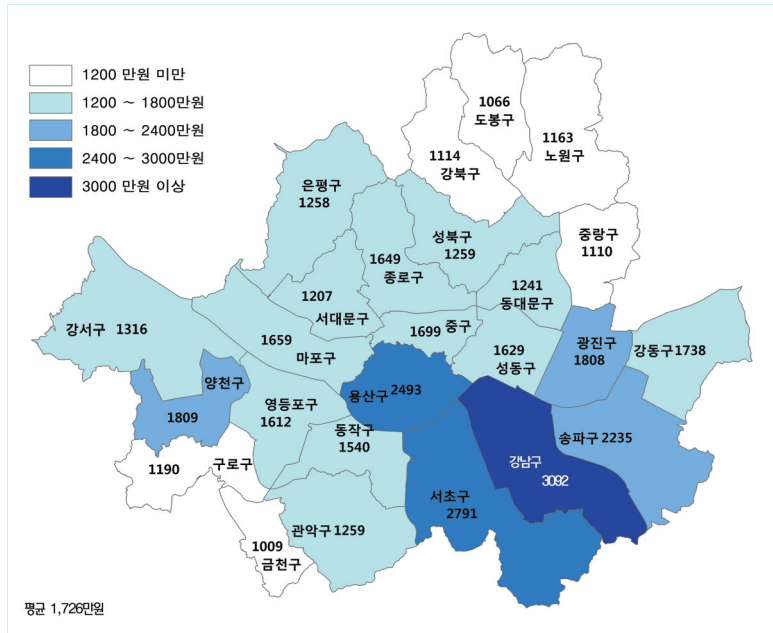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하락폭이 소폭 확대된 가운데, 노원구와 은평구 등에서 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0.2% 하락**
 - 노원구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매매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인근 별내신도시 입주자들의 급매물이 증가하면서 기존단지의 대형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확대되며 전월대비 0.4% 하락
 - 은평구는 실수요자들의 문의도 감소하며 한산한 가운데, 불광동과 역촌동의 단독과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0.3%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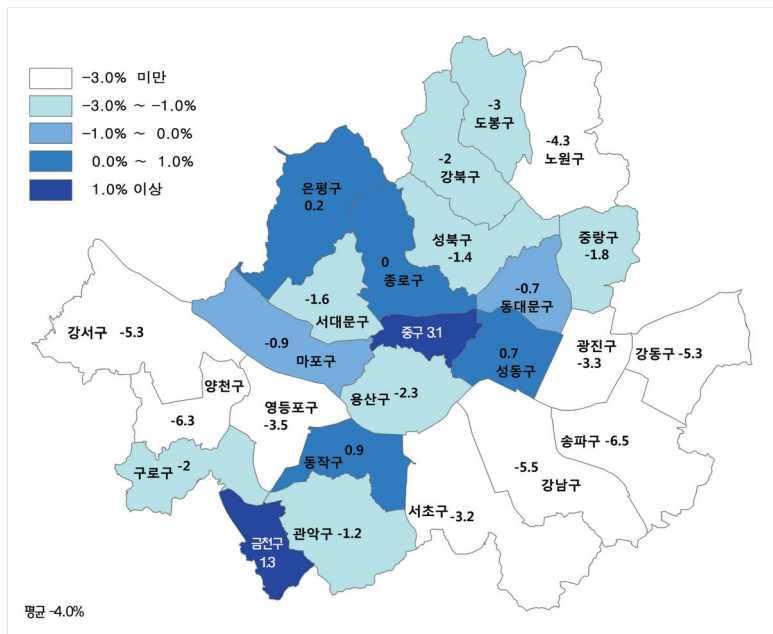
- **강남지역은 서초구와 강서구 등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2% 하락**
 - 서초구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급감하고 인근 지역대비 상대적인 가격 부담으로 신규 진입 수요의 감소가 이어지며 전월대비 0.5% 하락
 - 강서구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매매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소형이나 급매물 위주로만 간혹 거래가 성사되며 전월대비 0.4% 하락

- **서울의 6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6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726.4만원으로 전월대비(1735.7만원)대비 하락하여 16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모두 5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강남구(3,092만원), 서초구(2,791만원), 용산구(2,493만원), 송파구(2,235만원), 양천구(1,809만원), 광진구(1,808만원), 강동구(1,738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09만원), 도봉구(1,066만원), 중랑구(1,110만원), 강북구(1,11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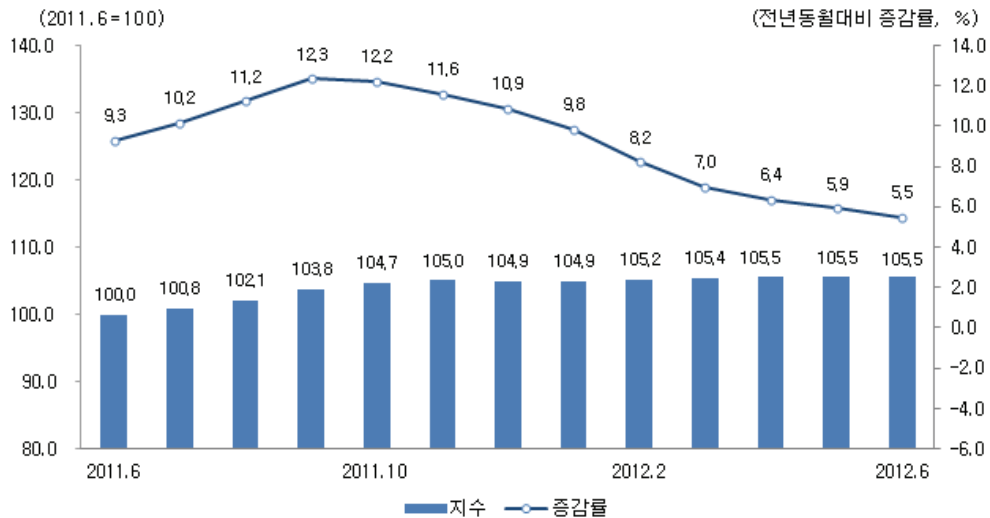
서울의 6월 주택전세가격은 상승률 둔화되면서 전월대비 보합

■ 서울의 6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보합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전월대비 보합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와 연립은 전월대비 보합한 반면,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0.1% 상승

■ 전국의 6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로 이동수요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어 전월대비 0.1% 상승
- 광역시와 기타지방도 상승폭이 소폭 축소된 가운데 전월대비 각각 0.2%, 0.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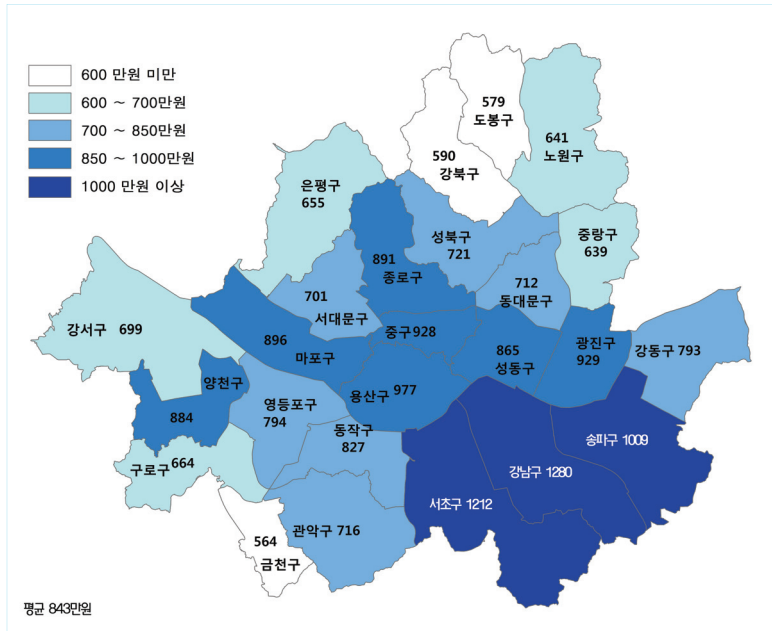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중랑구와 서대문구 등에서 상승하고 노원구, 성동구 등에서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보합**
 - 중랑구는 인근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적어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인한 수요증가로 전월대비 0.3% 상승
 - 서대문구는 방학을 이용하여 이동하려는 수요자와 신혼부부 등 전세수요가 발생하면서 전월대비 0.2% 상승
 - 노원구는 인근 별내신도시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중대형을 중심으로 기존단지에서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월대비 0.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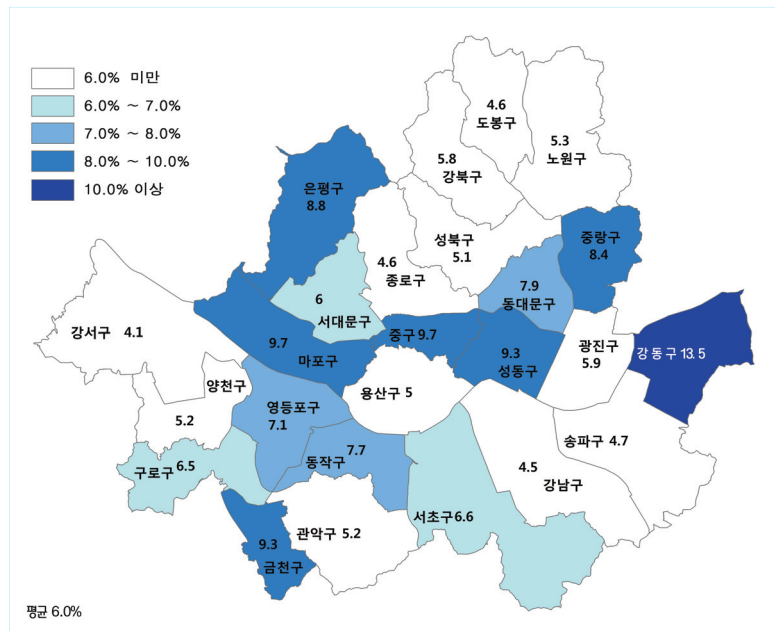
- **강남지역은 구로구, 관악구 등에서 상승한 가운데 서초구, 강동구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보합**
 - 구로구는 여의도, 강남 등 도심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한 역세권 소형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0.3% 상승
 - 서초구는 인근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의 유입수요가 감소하며 전월대비 0.3% 하락
 - 강동구는 계절적 비수기로 수요가 감소하며 하향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후단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월대비 0.2% 하락

- **서울의 6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6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43.2만원으로 전월대비(842.3만원) 소폭 증가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1,280만원), 서초구(1,212만원), 송파구(1,009만원), 용산구(977만원), 광진구(929만원), 중구(928만원), 마포구(896만원), 종로구(891만원), 양천구(884만원), 성동구(86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64만원), 도봉구(579만원), 강북구(590만원), 중랑구(63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가 · 계 · 대 · 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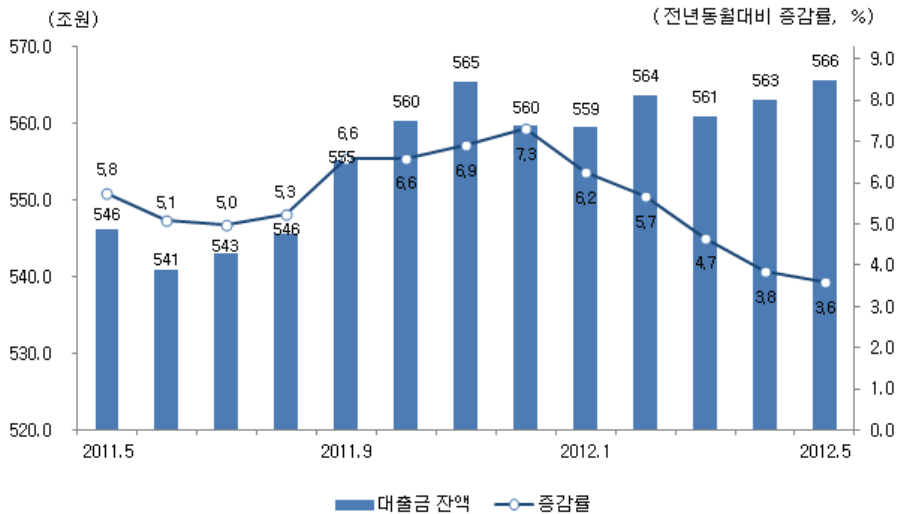
서울의 5월 은행의 전체대출금과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

■ 5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 5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5조 6771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2조 6,071억원(0.46%)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56조 7,750억원 규모, 비예금은행은 108조 9,021억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3%, 4.6% 증가

■ 5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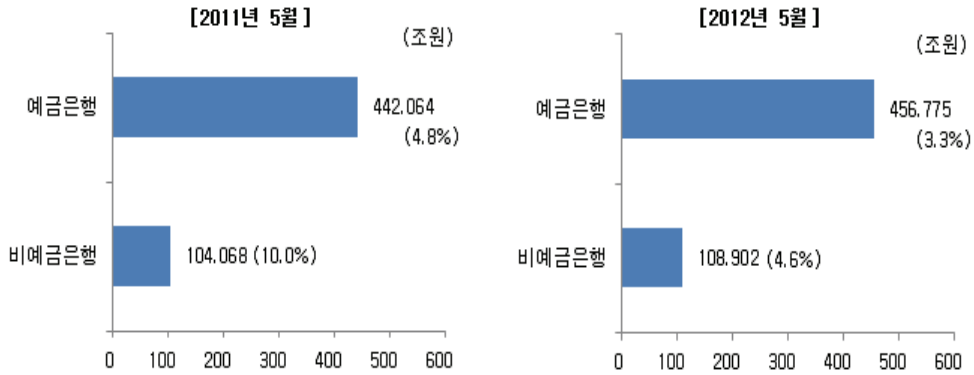
- 5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428조 6,591억원으로 전월대비 8조 4,700억원(0.60%)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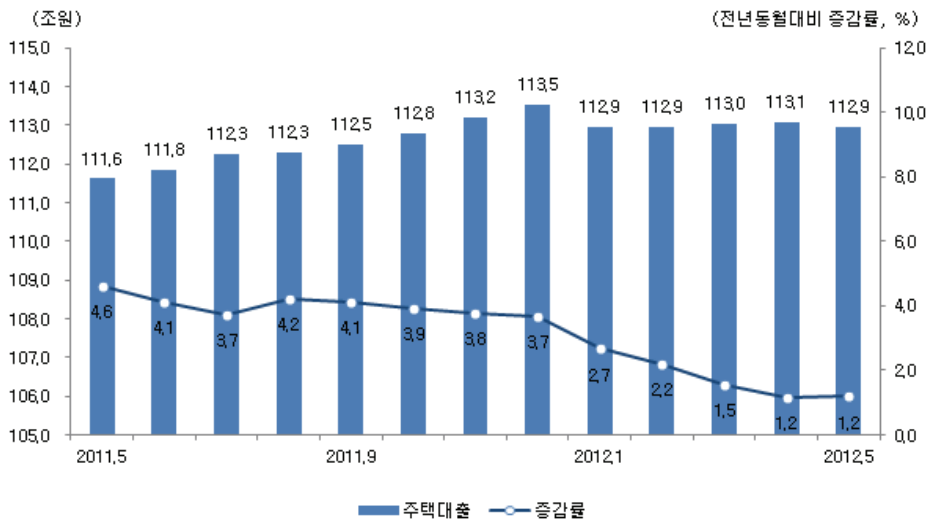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5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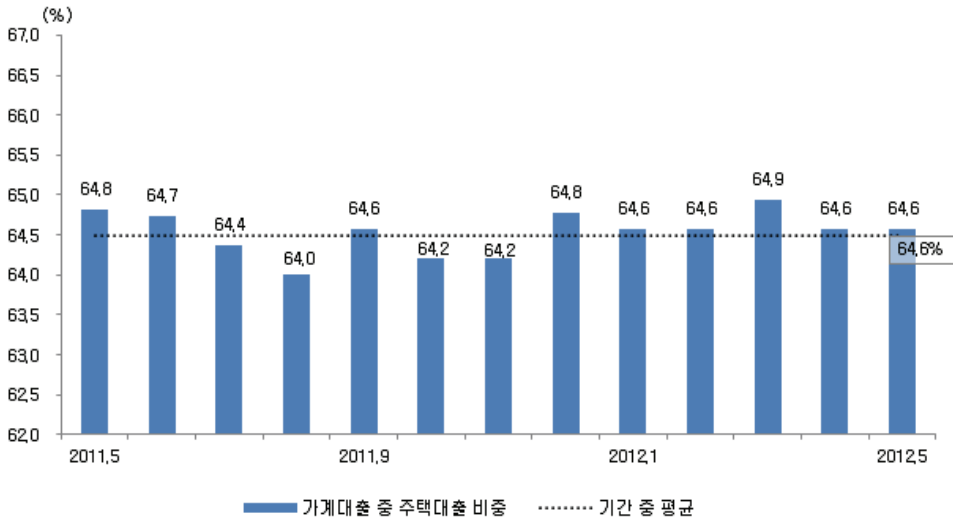
- 5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5조 168억원으로 전월대비 586억원(0.3%) 증가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2조 938억원(64.6%)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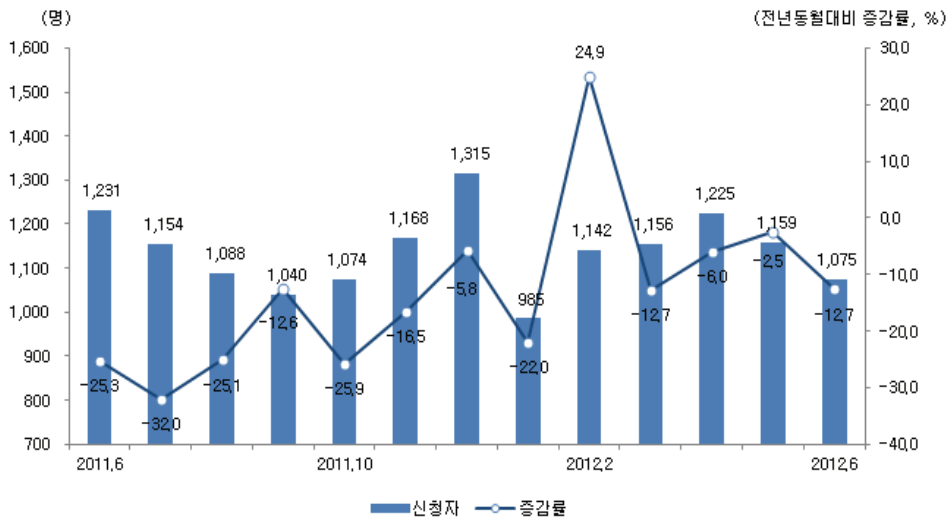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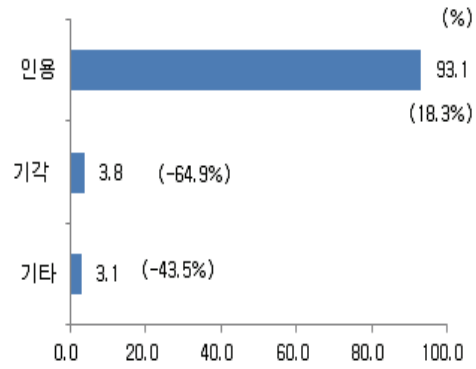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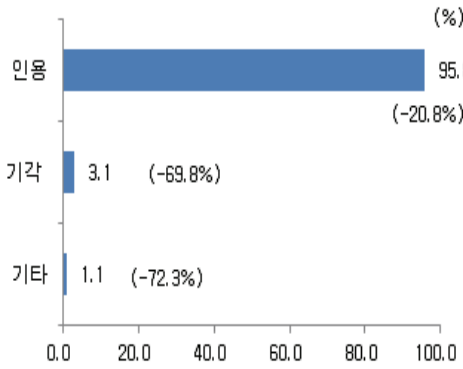
■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

- 6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075명으로 전월대비 7.2%, 전년동월대비 12.7%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69.8% 감소하였고 면책 기각률도 3.8%로 전년동월대비 64.9% 감소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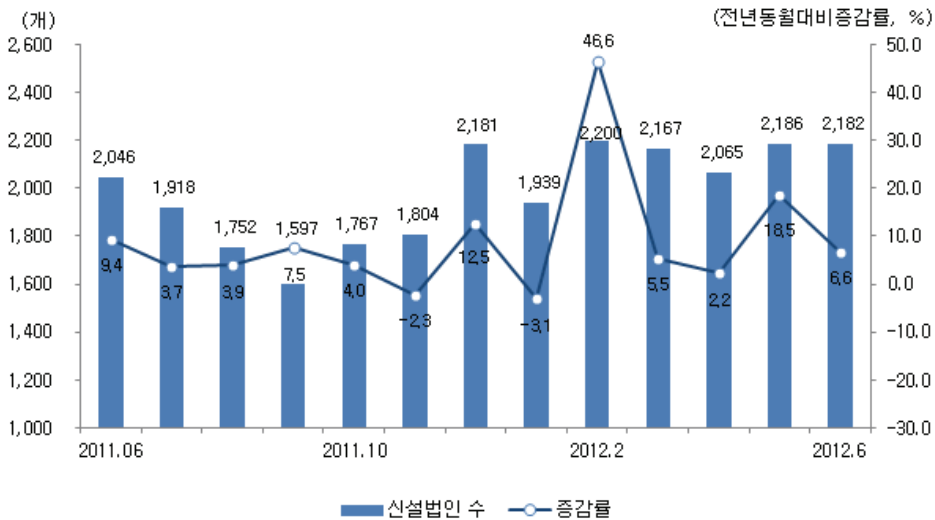
<그림> 6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6월 면책 처리현황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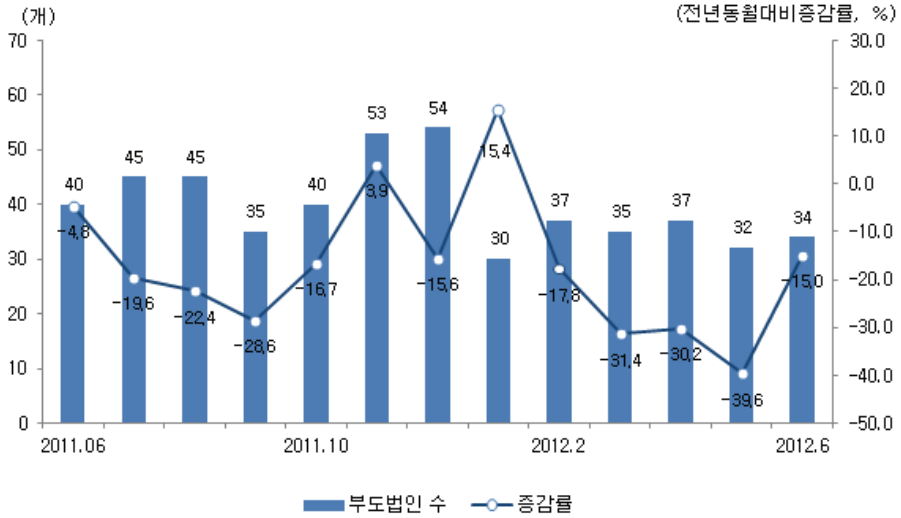
서울의 6월 신설법인 건설 및 설비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소폭 감소

- 서울의 6월 신설법인 수 건설 및 설비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소폭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182개로 전월대비 0.2%(4개) 소폭 감소, 전년동월대비 6.6%(136개)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9.8%(50개) 증가한 반면 건설 및 설비업과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각각 12.2%(18개), 2.2%(39개) 감소
- 서울의 6월 부도업체 수 건설 및 설비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4개로 전월대비 6.3%(2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5.0%(6개) 감소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과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각각 50.0%(4개), 16.7%(2개) 증가하였고 제조업은 전월대비 30.0%(3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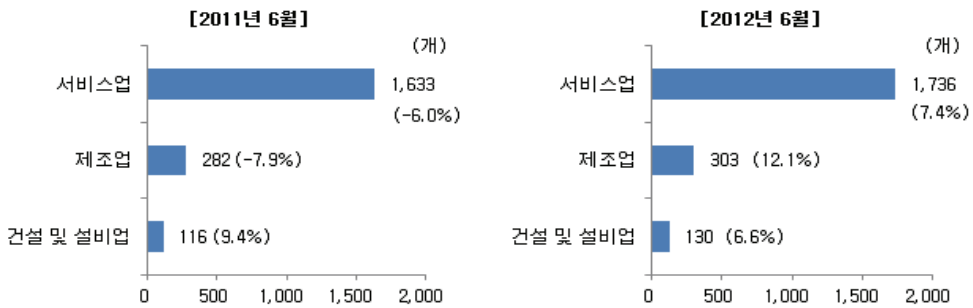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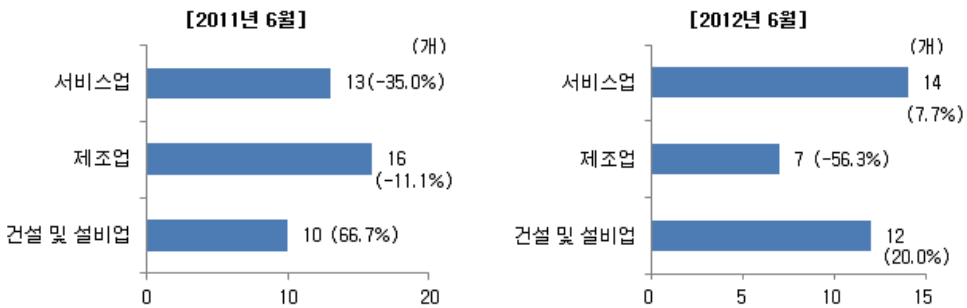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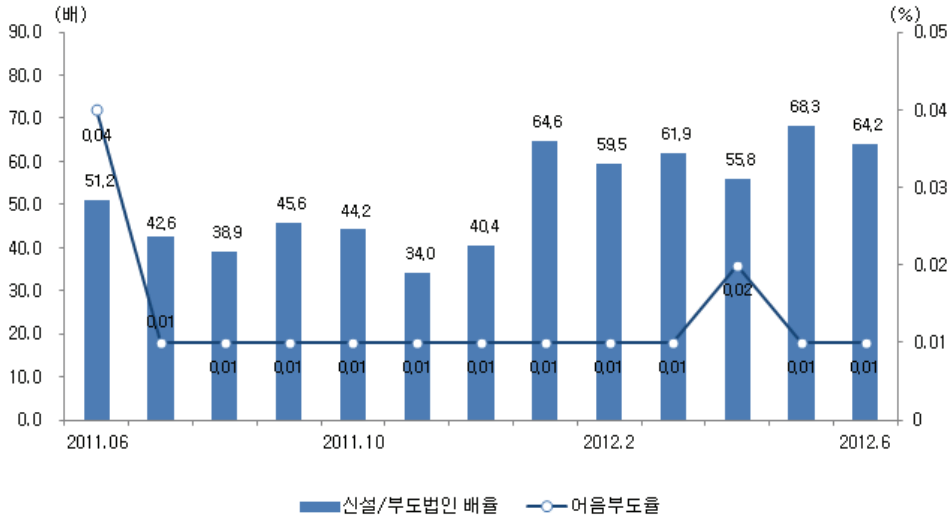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감소

- 6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64.2배로 전월(68.3배)보다 감소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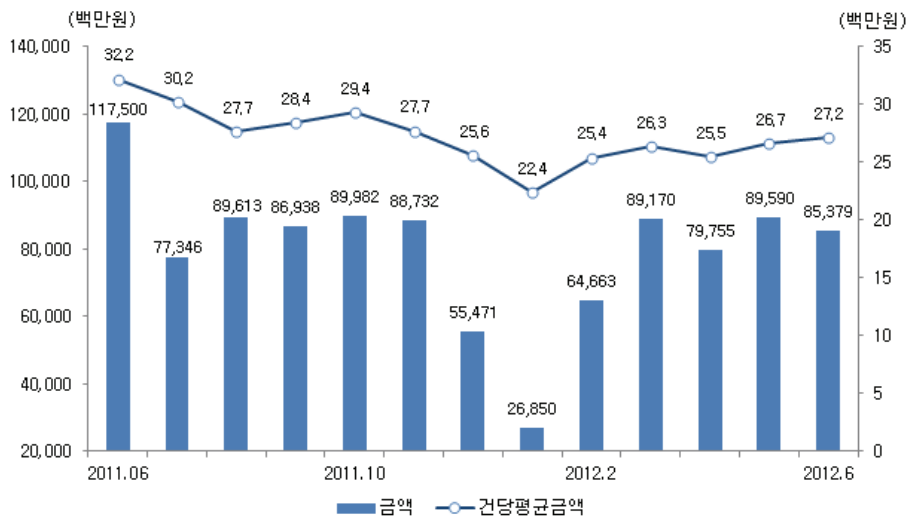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용·보·증·동·향 |

서울의 6월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전월대비 증가

■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6월 중 3,138건, 85,379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와 보증금액은 각각 6.6%, 4.7% 감소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 2.3% 증가
- 전년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와 보증금액은 14.0%, 27.3% 감소하였고, 건당 평균 지원 금액도 15.5%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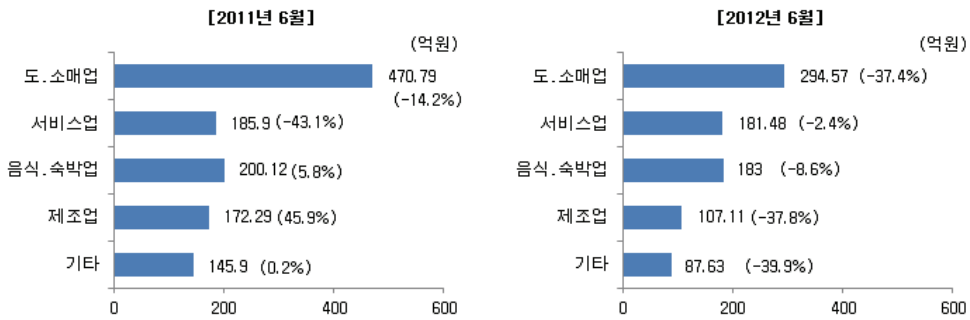
■ 제조업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소폭 상승

- 6월중 에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12.5%로 전월(10.6%)대비 1.9%p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은 34.5%로 전월(37.4%)대비 2.9%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9.0%로 전월(7.9%)대비 1.1%p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종은 34.0%로 전월(35.8%)대비 1.8%p 감소

■ 중기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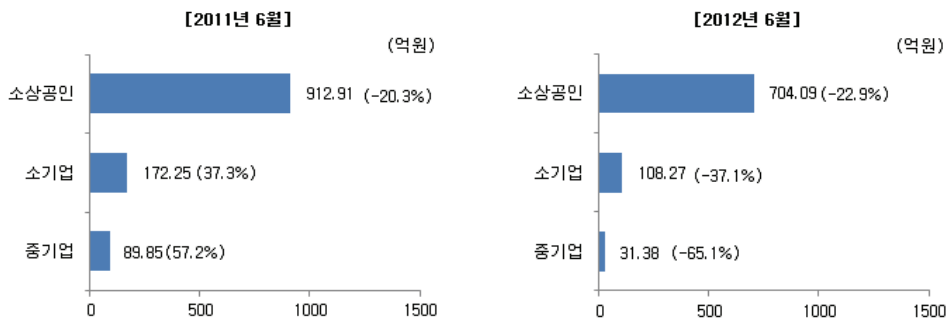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2.5%로 전월대비 1.1%p 감소하고 건수기준으로는 92.5%로 전월대비 0.6%p 감소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12.7%로 전월대비 0.1%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5.4%로 전월대비 0.4%p 증가하였고 중기업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4.8%로 전월대비 1.0%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2.1%로 전월대비 0.2%p 증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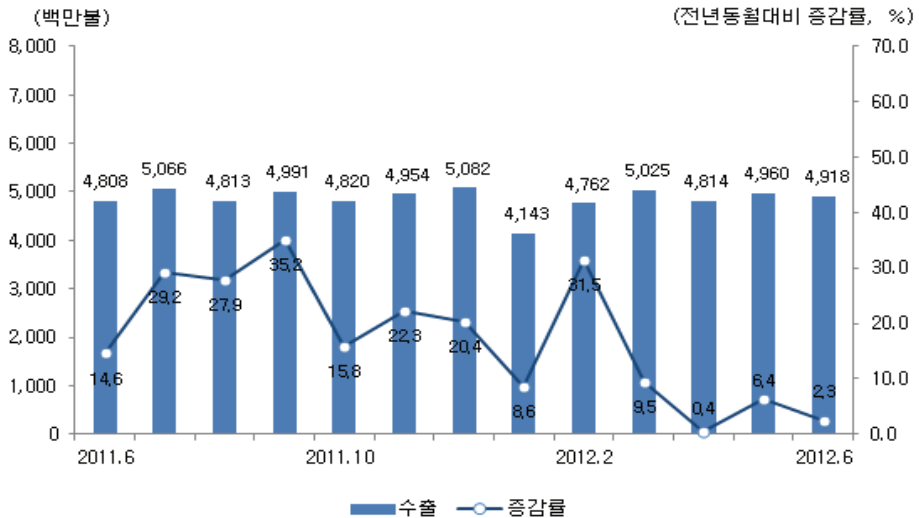
서울의 6월 수출 자동차 부품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6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수출은 49.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한 반면 수입은 98.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8.3% 감소
- 전국의 수출은 446.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8.8% 감소하였고 수입은 418.8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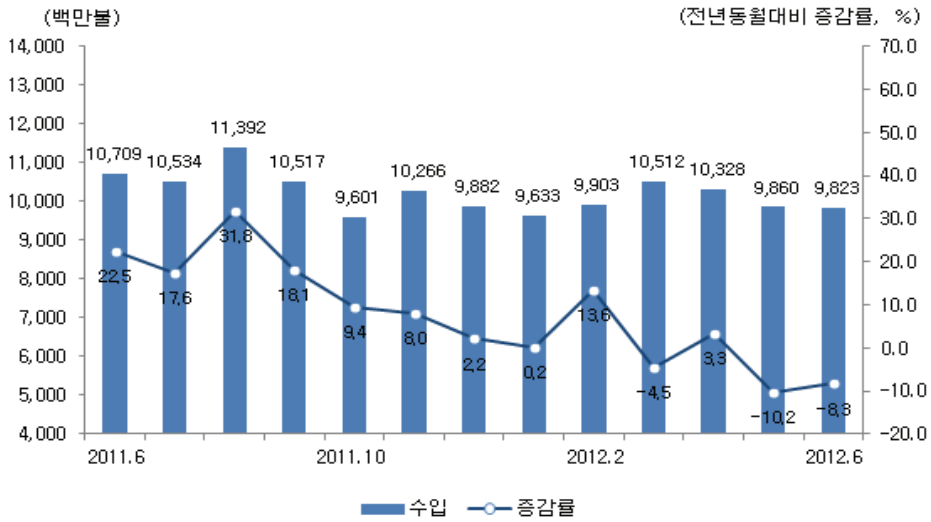
■ 서울의 6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627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편직물, 고무제품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1,126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자동차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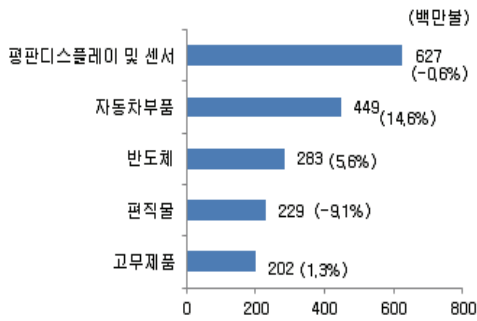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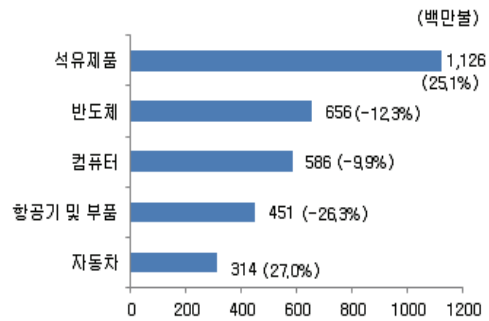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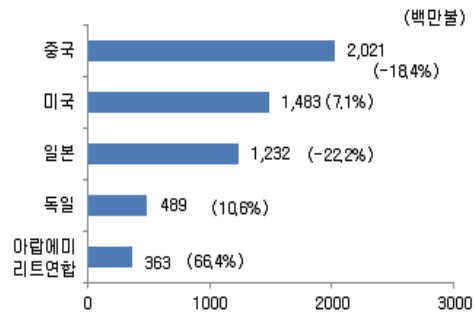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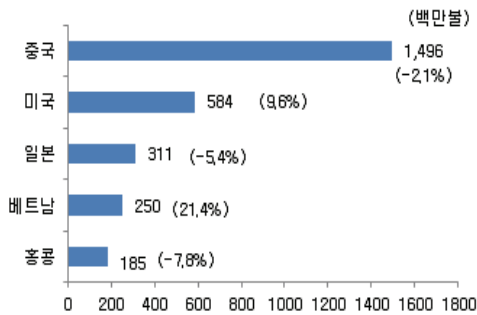
<그림> 6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6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6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2.1% 감소한 1,496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8.4% 감소한 2,021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아랍에미리트연합 순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6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6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 서울의 6월 주요 FTA 대상국 수출 1순위 품목은 미국의 자동차부품

- 미국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자동차 부품이 123백만불, 수입은 항공기 및 부품이 439백만불로 높은 수치를 기록
- 칠레의 경우 자동차 3백만불 수출, 동제품 19백만불 수입하였고 페루는 합성수지 3백만불 수출, 금은 및 백금 8백만불 수입 기록
- 싱가포르의 경우 수출입 모두 반도체가 22백만불, 118백만불을 기록하였고 인도의 경우 합성고무 19백만불 수출, 석유제품 140백만불 수입 기록

〈표〉 6월 주요 FTA 대상국별 서울시 수출입 품목

(전년동기대비)

구분	순위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천불	증가율		천불	증가율
미국		합계	583,600	9.6	합계	1,482,807	7.1
	1	자동차부품	123,015	46.9	항공기및부품	439,557	20.3
	2	무선통신기기	77,191	19.7	곡실류	82,852	9.0
	3	고무제품	64,039	7.0	자동차	64,822	97.4
칠레		합계	13,349	-13.5	합계	53,048	56.6
	1	자동차	3,576	-9.6	동제품	19,415	345.1
	2	고무제품	2,606	47.8	육류	7,958	-1.0
	3	합성수지	1,548	14.7	제지원료	6,587	0.3
페루		합계	7,186	-17.1	합계	10,767	-77.3
	1	합성수지	3,066	84.9	금은및백금	8,453	89.4
	2	합성고무	767	-35.6	동제품	628	-
	3	정밀화학원료	573	251.8	아연광	416	-
싱가포르		합계	79,909	22.5	합계	289,732	9.8
	1	반도체	22,978	1.4	반도체	118,320	23.6
	2	계측제어분석기	8,144	1,639.6	석유제품	42,009	1,565.1
	3	컴퓨터	3,414	0.8	컴퓨터	33,659	-35.1
인도		합계	108,627	1.9	합계	224,268	-36.9
	1	합성고무	19,061	-32.6	석유제품	140,222	-38.8
	2	자동차부품	18,223	13.3	기초유분	23,447	9.3
	3	합성수지	13,745	37.3	알루미늄	10,886	73.7